

24.09.03.(화)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Tel 02-6788-3201, 3631 / Fax 02-6788-3629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장정욱 선임비서관(박주민 의원실) 010-6788-5732

을지로위원회가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의 사회복귀 길을 열겠습니다!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공동발의 기자회견

2024년 9월 3일 (화) 13: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을지로위원회가 파산선고를 받으신 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을 선고받은 수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마련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많은 현행 법률이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 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245개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러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회생법」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파산 시 자격 제한을 없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규정을 축소하는 입법이 있었고 작은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많은 법률에서 많은 자격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러한 불합리한 결격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파산선고 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국민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용만,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엄태영, 오세희, 이기현, 이용선, 이원택, 황정아**

[참고] 기자회견 기획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 개정>

□ 취지 및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징표로 삼는 것은 도산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국가가 마련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
-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을지로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직접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개요

- 일시 : 24. 09. 03.(화) 13:4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 진행순서

(사회자 : 김남근 국회의원)

시간	내용	비고
13:40~13:45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사회자, 박주민 위원장
13:45~13:48	모두발언	서영교 의원
13:48~13:50	기자회견문 낭독	참석자